



##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영향요인\*

남 경 아<sup>1)</sup> · 임 지 영<sup>2)</sup> · 송 희 영<sup>3)</sup>

1)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2)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3)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Abstract =

## Predictors of Resilience for High School Adolescents\*

Nam, Kyoung-A<sup>1)</sup> · Lim, Ji-Young<sup>2)</sup> · Song, Hee-Young<sup>3)</sup>

1) Full Time Instructor, School of Nursing, Hanzhong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coping mechanism, social support and family strengths and to explore predictors of resilience in high school adolesc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96 high school adolescents residing in two urban areas in Korea. The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measuring Resilience (Jew et al., 1997), Coping Mechanism (Carver et al., 1989), Social Support (Lee, 1997) and Family Strengths (Olson, 1982). **Resul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were found to influence resilience, coping mechanism, social support and family strengths. The results showed that resilience, problem-focused coping, social support and family strengths were correlated positively and self-esteem support, problem-focused coping, sibling's and mother's help, and instrumental support were the predictors of resilience in these students. **Conclusion:** We found there were specific attributes of individual, social and family factors which predict resilience for adolescents in school. These results suggest further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resilience, identify other predictors of resilience for Korean students, and to examine whether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have a similar influence on resilience.

**Key words :** High school adolescents, Resilience, coping mechanism, Social support, Family strengths

주요어 : 고등학교 청소년, 적응유연성, 대처기전, 사회적 지지, 가족강도

\* 본 연구는 아주 남북한 보건의료 연구소 2005년 학술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Aju Korean Unification and Health Care Institute in 2005.

교신저자 : 송희영(E-mail: songhy@yonsei.ac.kr)

투고일: 2006년 1월 19일 심사완료일: 2006년 3월 3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Hee-Young(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62. Ilsan dong, Wonju, Kangwondo 220-767, Korea

Tel: +82-33-741-0390 Fax: +82-33-743-9490 E-mail: songhy@yonsei.ac.kr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의 특성에서 성인의 형태로 이행하는 인생의 전환기로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하는 욕구의 발달과 더불어 생활의 중심이 차츰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서 동료 및 이성 관계, 학업, 진학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회적 제약과 사회적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등 많은 내·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부모 및 성인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공부에 대한 압력, 부모-자녀 관계의 재정립 및 직업에 대한 준비 등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며(한건환, 장희숙, 안권순, 2004), 특히 현대사회는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 적응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야기되는 비행, 폭력, 물질남용, 자살, 학업동기 상실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윤현희, 홍창희, 이진한, 2001).

이와 같이 발달기적 특성과 현대사회의 환경적 정황 상 청소년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데,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상호작용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고, 특히 1970년대부터는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강인하고 탄력있게 적응하고 발달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유성경, 심혜원, 2002).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인 적응유연성(박현선, 1998)은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향을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Luthar, 1991, 조규필, 2004에서 재인용)으로 역경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이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박현선, 1998). Jew, Green과 Kroger(1999)는 적응 유연성이 대응이전에 나타나는 신념체계에 의한 정해진 행동 방식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자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관계성, 세상의 좋음(goodness of world)에 대한 지각의 독특한 신념체계에서 비롯된 독특한 기술과 능력을 사용 하는 개인이 적응유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제까지의 청소년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들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문제발생을 해결하려고 하여 왔다면(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성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접근이라 하겠다. 즉, 청소년의 유능성을 지속적으로 고양시키고 보호기제를 강화함으로써 문제 발생이

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적응유연성 관련 연구들은 주로 실직가정 청소년(박현선, 1998), 가출 청소년(조규필, 2004), 성학대 피해 청소년(권해수, 2002), 그리고 문제음주 부모를 둔 청소년(이현화, 2003) 등 과 같이 이미 부적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 환경이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제한되어 왔으므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응유연성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문제 예방과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이 중요한 과업으로 부과되는 고등학생들은 신체적·심리적 긴장상태 속에서 학교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 개인, 가족 및 사회환경적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문제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한건환 외, 2004). 그러므로 고등학생에서 적응유연성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요인, 즉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Stewart et al., 1997). 즉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생태학적 맥락, 외적 요소들이 개인이 위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적응유연성이라고 보는 관점(Fergus & Zimmerman, 2005)과 적응유연성을 내적 개인 체계와 외적 환경지지체계 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두 체계간의 상호작용과 조합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Carter, 2000, 김정득, 2002에서 재인용)는 주장은 적응유연성을 파악함에 있어 개인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환경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가족 및 또래,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탐색되어야 하는데(유성경, 심혜원, 2002), 청소년의 문제행동 또는 학교적응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책임감, 계획성,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민주적 학교분위기 등이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고(박현선, 1998), 외로움, 절망감, 사회적 유대 등이 부랑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Rew et al., 2001)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개인의 특성, 가족과 사회적 관계 등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 주로 연구되어 온 변인인 대처기전은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한 내, 외적 요구를 관리하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Lazarus & Folkman, 1988), 청소년의 문제행동(김형선, 2002)이나 학업성적과 불안(임용우, 199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고, 특히 대처기전과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의 위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박영숙,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기적 및 심리사회적 특성 상 스트레스 상황 및 위협요소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과 대처기전, 가족강도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고 위기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 하여 탄력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적응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심리사회적 접근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정도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탐색연구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적응유연성 정도를 파악한다.
- 고등학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대처기전, 사회적 지지, 가족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고등학교 청소년의 대처기전, 사회적 지지, 가족강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신념체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탐색연구이다.

###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모집단은 만 12-18세 연령 범위에 속하는 청소년으로, 근접모집단은 한국의 중소도시에서 거주하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선정을 위하여 경기도와 충청도의 규모가 비슷한 2개의 고등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 고등학생 296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 연구도구

#### ●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이란 외적 스트레스와 내적긴장에 대해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장순정, 2002). 본 연구에서는 Jew 등(1997)이 개발한 'Resiliency Belief System'을 김정득(2002)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개발당시 Jew 등(1997)은 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이 도구를 적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거쳐 3개의 하위영역, 즉 기술습득에 대한 적극성(Active skill acquisition),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성), 그리고 독립성/위기대처능력(Independent/Risk taking)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는 49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응답은 각 항목별로 5점의 Likert scale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동의함'의 5점까지로 구성되었으며 개발당시 도구의 하부영역 별 Cronbach's  $\alpha$  는 .77 ~ .95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ctive skill acquisition(기술습득에 대한 적극성), Future orientation(미래지향성), 그리고 Independent/Risk taking(독립성/위기대처능력)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뉜 총 45문항의 6점 Likert scale로 적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6 이었다.

#### ● 대처기전

대처는 직면한 스트레스적 사건을 다스리기 위한 개인의 인지 행동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Carver, Sheier, & Weintraub, 1989) 본 연구에서는 Carver 등(1989)이 개발한 COPE 척도를 오승환(2001)이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청소년에게 적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의 4점 Likert scale로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기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대처의 Cronbach's  $\alpha$  = .608, 정서중심대처의 Cronbach's  $\alpha$  = .431이었다.

####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위기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 인지적 해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적응적 대처행위를 촉진시켜 주는 정서적, 정보적, 및 물질적 도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권대희, 오운자, 2004).

본 연구에서는 지지자원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배, 담임교사로부터 받는 도움의 정도를 '전혀 도움이 안된다' 0점, '매우 도움이 된다' 4점의 Likert scale 1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자원에 따른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지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경주(1997)가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적용한

사회적지지 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유형 척도는 총 17문항의 5점 Likert scale로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43$  이었다.

● 가족강도

가족강도는 성공적 가족관계에 기여하는 가족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Olson et al., 1982, Oh, 198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1982)이 개발하여 Oh(1984)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가족강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2문항의 5점 Likert scale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80$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2005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일개 도시에 거주하는 17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질문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된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여 도구를 최종확정하였다. 질문지 응답시간은 평균 15-20분 정도였다.

●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인구분포 및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도시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중 규모가 유사한 2곳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의 학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편의표출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총 296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적응유연성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 70.3%, 여학생 29.7%이며, 경기도의 일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59.5%, 충청도의 일 도시가 40.5%로 나타났다. 그 외 종교, 고민내용, 절친한 친구 수, 경제수준, 아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6

구분	내용	N	%
성별	남	208	70.3
	여	88	29.7
거주지역	경기도	176	59.5
	충청도	120	40.5
종교	기독교	90	30.7
	천주교	28	9.6
	불교	26	8.9
	무속신앙	2	0.7
	무교	147	50.2
	고민	성적	240
고민	이성/성문제	26	8.9
	교우관계	11	3.8
	기타	10	3.4
	절친한 친구 수	1명 이하	32
절친한 친구 수	2-3명	142	48.0
	4명이상	121	40.9
	경제수준	잘 사는 편	71
경제수준	보통	192	64.9
	못 사는 편	33	11.1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34
전문대졸 이하		10	3.4
대졸이상		148	47.7
아버지 직업	사무관리직	134	47.2
	생산서비스직	93	32.8
	전문직	57	19.7
	무직	6	2.1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13	72.5
	전문대졸이하	7	2.4
	대졸이상	74	25.1
어머니 직업	주부	171	58.3
	생산서비스직	71	24.8
	사무/전문직	51	17.4
	동거가족	부모	276
동거가족	형제/자매	271	92.8
	형제순위	첫째	170
형제순위	둘째이후	121	41.6

무응답/비해당 제외

버지 학력 및 직업, 어머니 학력 및 직업, 동거가족 등의 분포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상자의 적응유연성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문항의 평균점수는 195.91±24.38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술습득의 적극성 63.30±8.15, 미래지향 66.84±10.97, 독립/위기대처 능력 65.76±8.1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의 차이검증

<표 2> 대상자의 적응유연성 정도

N=296

	전체	기술습득의 적극성	미래지향	독립/위기대처 능력
평균±표준편차	195.91±24.38	63.30±8.15	66.84±10.97	65.76±8.16

무응답/비해당 제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의 차이검증을 파악한 결과<표 3> 종교가 기독교 또는 불교인 경우가 무교인 경우에 비해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652, p=.013). 또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적인 경우가 생산판매적인 경우에 비해(F=3.330, p=.037),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맞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F=3.724, p=.025), 친구수가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1명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229, p=.041), 성적이 좋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190, p=.001). 부분적으로는 하위개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아버지의 연령이 45세 이하인 경우가 49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미래지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F=3.727, p=.025), 어머니의 연령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42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독립/위기대처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3.045, p=.049).

**적응유연성, 대처기전, 사회적 지지, 가족강도의 상관관계**

적응유연성과 문제중심대처, 지지자원(가족도움, 친구도움, 담임도움) 및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지지, 가족강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문제중심대처와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간에는 정적상관관계(r=.458, p=.000), 가족강도와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간에는 정적 상관관계(r=.276, p=.000), 문제중심대처와 가족강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r=.171, p=.003), 정서중심대처와 가족강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322,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의 차이

구분	내용	적응유연성			
		기술습득의 적극성	미래지향	독립/위기대처 능력	전체
종교	기독교 (n= 90)	63.64±8.25 <sup>a,b</sup>	69.10±11.20 <sup>a</sup>	66.96±8.67 <sup>a</sup>	199.70±25.66 <sup>a</sup>
	천주교 (n= 28)	62.32±6.80 <sup>b</sup>	64.96±11.73 <sup>a,b</sup>	67.07±6.14 <sup>a,b</sup>	194.36±22.53 <sup>a,b</sup>
	불교 (n= 26)	67.19±7.31 <sup>b</sup>	69.85±11.71 <sup>b</sup>	68.92±7.74 <sup>a</sup>	205.96±24.63 <sup>a</sup>
	무교 (n=147)	62.54±8.39 <sup>a</sup>	65.22±10.19 <sup>b</sup>	64.12±8.01 <sup>b</sup>	191.88±23.30 <sup>b</sup>
	F(p)	2.606 (.052)	3.364* (.019)	4.295** (.006)	3.652* (.013)
아버지 직업	사무관리직 (n=134)	64.06±8.07	67.56±10.87 <sup>a,b</sup>	65.79±7.88 <sup>a,b</sup>	197.41±24.21 <sup>a,b</sup>
	생산서비스직(n= 91)	62.05±8.59	64.85±11.31 <sup>a</sup>	64.19±8.75 <sup>a</sup>	191.09±25.70 <sup>a</sup>
	전문직 (n= 57)	63.49±7.79	69.35±10.20 <sup>b</sup>	68.26±7.30 <sup>b</sup>	201.11±22.28 <sup>b</sup>
F(p)	1.646 (.195)	3.286* (.039)	4.482* (.012)	3.330* (.037)	
아버지 연령	45세이하 (n=101)	64.28±8.11 <sup>a</sup>	68.35±10.82 <sup>a</sup>	66.53±7.62	199.16±23.24 <sup>a</sup>
	48세이하 (n=106)	64.34±8.88 <sup>a,b</sup>	67.51±10.93 <sup>b</sup>	65.40±9.31	196.25±26.89 <sup>a,b</sup>
	49세이상 (n= 83)	61.81±7.01 <sup>b</sup>	64.13±10.95 <sup>c</sup>	65.16±7.11	191.10±21.69 <sup>b</sup>
	F(p)	2.128 (.121)	3.727* (.025)	.787 (.456)	2.551 (.080)
어머니 연령	42세이하 (n= 89)	62.35±8.21	65.55±11.42 <sup>a</sup>	64.00±8.68 <sup>a</sup>	191.90±25.83 <sup>b</sup>
	44세이하 (n= 85)	64.26±8.38	68.92±10.13 <sup>b</sup>	66.41±7.96 <sup>a,b</sup>	199.59±23.21 <sup>b</sup>
	45세이상 (n=118)	63.23±7.90	66.20±11.15 <sup>a,b</sup>	66.63±7.76 <sup>b</sup>	196.06±23.87 <sup>a,b</sup>
	F(p)	1.200 (.303)	2.345 (.098)	3.045* (.049)	2.187 (.114)
경제수준	잘 사는 편(n= 71)	64.48±8.79	69.35± 9.72 <sup>a</sup>	66.85±7.59 <sup>a</sup>	200.68±23.36 <sup>a</sup>
	보통 (n=192)	63.16±7.77	66.71±11.14 <sup>a</sup>	65.83±8.01 <sup>a,b</sup>	195.70±24.07 <sup>a,b</sup>
	못 사는 편(n= 33)	61.55±8.74	62.24±11.19 <sup>b</sup>	63.03±9.74 <sup>b</sup>	186.82±26.62 <sup>b</sup>
	F(p)	1.542 (.216)	4.901** (.008)	2.508 (.083)	3.724* (.025)
절친한 친구 수	1명 이하 (n= 33)	60.73±6.07 <sup>b</sup>	65.21±10.04	63.03±6.84 <sup>a</sup>	188.97±18.96 <sup>a</sup>
	3명 이하 (n=142)	62.73±8.36 <sup>a,b</sup>	66.23±11.02	65.27±8.22 <sup>a,b</sup>	194.23±24.89 <sup>a,b</sup>
	4명 이상 (n=121)	64.67±8.19 <sup>b</sup>	66.01±11.12	67.08±8.16 <sup>b</sup>	199.76±24.63 <sup>b</sup>
	F(p)	3.778* (.024)	1.270 (.282)	3.757* (.024)	3.229* (.041)
학교성적	r(p)	.098 (.093)	.191** (.001)	.080 (.175)	.190** (.001)

\*p<.05, \*\*p<.01, \*\*\*p<.001

a,b : 사후검정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p<.05)

<표 4> 적응유연성, 대처기전, 사회적지지, 가족강도의 상관관계

N=296

	적응유연성			대처기전		사회적지지			지지유형
	기술습득의 적극성	미래지향	독립/위기 대처	문제중심	정서중심	지지자원			
						가족도움 <sup>1)</sup>	동료도움 <sup>2)</sup>	담임도움	
문제중심	.391*** (.000)	.401*** (.000)	.431*** (.000)						
정서중심	-.042 (.470)	-.113 (.053)	.002 (.976)	.071 (.222)					
가족도움 <sup>1)</sup>	.204*** (.000)	.268*** (.000)	.270*** (.000)	.089 (.129)	-.201** (.001)				
동료도움 <sup>2)</sup>	.315*** (.000)	.201*** (.000)	.265*** (.000)	.272** (.000)	.097 (.098)	.107 (.067)			
담임도움	.146* (.013)	.138* (.018)	.161** (.006)	.205** (.000)	-.015 (.801)	.313*** (.000)	.182** (.002)		
지지유형	.582*** (.000)	.492*** (.000)	.561*** (.000)	.458** (.000)	-.066 (.255)	.169** (.004)	.412*** (.000)	.082 (.160)	
가족강도	.264*** (.000)	.354*** (.000)	.254*** (.000)	.171** (.003)	-.322*** (.000)	.522*** (.000)	-.009 (.877)	.114 (.053)	.276*** (.000)

무응답/비해당 제외 \*p<.05, \*\*p<.01, \*\*\*p<.001

1) 아버지, 어머니, 형제 도움의 합, 2) 친구, 선배 도움의 합

적응유연성 영향요인

청소년의 대처기전(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 지지자원(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배, 담임) 및 지지유형(정보지지, 정서지지, 자존지지, 물질지지)에 따른 사회적 지지, 가족강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ethod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자존지지, 문제중심대처, 형제도움, 어머니도움, 물질지지의 순이었고, 설명력은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으로의 성장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파악하고 대처기전, 사회적 지지, 가족강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은 195.91±24.38로 나타나 김정득(2002)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노출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성 음주부모를 가진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조사한 결과인 189.00±26.54보다 높다. 최근에는 적응유연성을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유연성이 개체 발생적으로 안정된 현상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Cowen, 1997)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문제성 음주부모의 청소년 자녀의 적응유연성이 학교청소년들에 비해 낮다는 것은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 속에서 적응유연성이 비교적 안정된 속성으로 개인에게 내재화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청소년기 이전의 성장발달단계에서부터 고 위험 상황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의 증진을 위한 예방적 접근방법의 검토가 유용함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종교, 아버지 직업,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경제수준, 절친한 친구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의 경우 기독교 또는 불교인 경우 무교인

<표 5> 적응유연성 영향요인

N=296

모델	B	Beta	Adjusted R <sup>2</sup>	F (p)
I (상수)	2.723		.348	135.163***
자존지지	.439	.592		(.000)
II (상수)	2.139		.412	88.976***
자존지지	.353	.476		(.000)
문제중심 대처	.339	.282		
III (상수)	2.008		.446	68.471***
자존지지	.344	.465		(.000)
문제중심 대처	.333	.276		
형제도움	.087	.191		
IV (상수)	1.864		.462	54.893***
자존지지	.332	.449		(.000)
문제중심 대처	.336	.279		
형제도움	.066	.146		
어머니 도움	.080	.141		
V (상수)	1.692		.474	46.163***
자존지지	.266	.360		(.000)
문제중심 대처	.331	.275		
형제도움	.063	.139		
어머니 도움	.074	.131		
물질지지	.109	.149		

무응답/비해당 제외

\*p<.05, \*\*p<.01, \*\*\*p<.001

경우에 비해 적응유연성의 각 하위영역 또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 지역사회조직 등과 같이 특정 집단이나 제도에 대한 참여나 강한 애착이 효과적인 대처와 관련된다고 보고한 Felsman과 Valiant(1987)(박현선, 1998)에서 재인용)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에게 있어 종교 활동은 지지자원의 확대, 스트레스 대처 자원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적응유연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다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자존감 지지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권혜수(2002)의 연구결과와 자아존중감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한 양순미와 유영주(2003)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기전은 문제중심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대처기전 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Lazarus와 Folkman(1988)의 이론적 견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 사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중심대처는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대처기전이 각각 독립적 특성을 가지며 나아가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어떤 대처기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outcome)를 초래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대처 기전 중 문제중심대처가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적 견해(Lazarus & Folkman, 1988)와 이혼이나 별거한 가족 자녀의 적응에 문제회피나 방관의 대처를 보일 때 부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김영희(1995)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문제중심대처가 청소년의 적응 유연성을 증진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청소년의 대처기전에 대한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Dumont와 Provost(1999)는 취약하거나 스트레스에 직면한 청소년들에 비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문제중심대처를 가장 낮게 사용하며, 회피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상이한 선행 연구도 있으므로, 청소년의 대처기전 및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관계를 좀 더 포괄적이고 정황을 고려한 관점에서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지자원 중 형제도와 어머니 도움은 적응유연성의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의 도움이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외동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형제관계의 부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형제는 부모나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

요한 사회관계로서 애정, 인정 등의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성인의 수평적 사회관계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의 탐색과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관계 발달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도움이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아버지의 도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모두의 지지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Fergus & Zimmerman, 2005)와 부모의 지지와 동성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Shek, 2004)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양순미와 유영주(2003)가 아버지와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국내의 연구결과와는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과는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모 역할 및 부모-자녀관계 양상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변화되거나 축소되고,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감소되어 가족의 영향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추세를 고려할 때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활성화 등을 통해 가족 기능의 조정 또는 지지에 대한 속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지지자원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과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직업이나 경제수준에 따라 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서는 부친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안정되게 함으로써 자녀의 적응유연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모친 또는 형제는 기능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지지가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양국선과 장성숙(2001)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으며,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빈곤한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강도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부적응의 형태인 비행성향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장순정(2002)의 연구에서 남녀학생 모두 가족불화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것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족 전체의 기능적인 측면의 영향력이 중학생에 비해 감소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와 형제의 도움이 적응유연성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가족의 기능보다는 의미 있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이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경우 적응유연성을 문제행동의 발생 여부 또는 학교적응 등에 제한하여 조사해 온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적응유연성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개인, 가족, 사회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지지자원 및 지지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측면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강점을 가진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강도의 도구는 부모-자녀관계 양상, 형제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부부의 친밀감 등 가족관계의 다양한 차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심리사회적 자원의 정도가 상이한 다른 환경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의 정도와 개인의 심리 사회적 변인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탐색연구로서 청소년의 대처기전(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 지지자원(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배, 담임) 및 지지유형(정보지지, 정서지지, 자존지지, 물질지지)에 따른 사회적 지지, 가족강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은 개인의 문제해결능력과 의미 있는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도움과 지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나 자원의 확대에 앞서 청소년 주변의 가족 및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관계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스트레스 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고 위험상황과 저 위험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환경적 특성의 규명과 그 변화양상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또는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의 차이에 대해 제한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 또는 거주지역, 학교급별 등에 따른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정도를 파악하는 대단위의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및 외국의 문헌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규명되어 온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제행동의 발생과 적응 또는 적응유연성 등이 상반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영향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호요인의 감소와 위험요인의 존재가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에 대해 파악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권대희, 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7.
- 권해수 (2002).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1995). *편모가정 내 자녀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득 (2002). *문제성 음주부모 청소년 자녀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선 (2002).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유형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숙 (2003). 초기 청소년의 위기모형 구축. *정신간호학회지*, 12(2), 182-190.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 양국선, 장성숙 (2001).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연구 :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27-148.
- 양순미, 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9), 121-134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 (2001).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1), 33-53.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화 (2003).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용우(1994). 시험스트레스 과정에서의 불안, 대처 및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순정 (2002).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적응유연성 및 비행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필 (2004). 청소년 심터가 가출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방식 및 문제행동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 연구*, 11(3), 385-402.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owen, E. L., Wyman, P. A., Work, W. C., Kim, J. Y., Fagen, D. B., & Magnus, K. B. (1997). Follow-up study of young stress-affected and stress-resilient urba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564-577.
- Dumont, M., & Provost, M.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Fergus, S., & Zimmerman, M. (2005). Adolescent resilien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ealthy development in the face of risk.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6, 399-419.
- Jew, C., Green, K., Kroger, J. (199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sil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2), 75-89.
- Lazarus, R. S., & Folkman, S. (1988).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Rew, L., Taylor-Seehafer, M., Thomas, N. Y., & Yockey, R. D. (2001). Correlates of resilience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33-40.
- Oh, K. (1984).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of Korean families with mentally-retard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Shek, D. T. (2004). Paternal and maternal influenc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of Chinese Adolescents experiencing economic disadvantag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6.
- Stewart M, Reid G., & Mangham C. (1997). Fostering children's resilience.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2(1), 21-31.